

정읍보물 '3미·6품·9경' 재편성

'특산품·음식·명소' 종합적 자원화로 관광산업 부흥 새 시대 전환 다음달부터 후보 발굴 등 후보군 압축...관광발전위 심의 거쳐 선정

정읍시가 관광산업 부흥의 새 시대를 열고자 지역의 관광명소, 특산품, 음식을 아우르는 '정읍보물'을 새롭게 선정한다.

현재 정읍시가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는 정읍의 대표 관광자원은 '정읍9경'이다.

지난 2007년 선정된 '정읍9경'은 2016년 3개소를 변경해 재선정됐지만 선정 10년이 지나면서 체계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용산호 수변공원', '한국가요촌 달하', 가칭 '드림랜드(순환열차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읍시는 단순한 명소의 선정을 넘어 특산품과

음식까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도록 종합적 관광자원화를 기획했다. 그 결과 시는 관광홍보의 틀을 '정읍9경'에서 '정읍보물'로 전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보물'은 ▲지역의 음식 맛을 대표하는 3미(味)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 6품(品) ▲지역 대표 관광지 9경(景) 등 '3미·6품·9경'의 형태가 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단체, 관광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읍만의 독창적인 매력과 정읍관공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읍보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월 중 '3미·6품·9경'의 후보를 발굴한 후 시민소통방 설문조사를 통해 1차 후보를 선정하고 시 SNS를 활용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로 후보군을 압축한다.

이어 최종 시관광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보물'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선정된 '정읍보물'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3미·6품·9경' 중심 정읍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보물의 재선정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정읍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정읍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문화관광재단 2025년 '고창한밤' 여행경비 지원사업.

고창 여행하고 경비도 지원 받고

2~11월 여행객 대상 2개월 간격 사전 모집...지난해 116팀 혜택

고창문화관광재단이 2025년 새해를 맞아 '고창한밤' 여행경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2~11월 고창으로 여행을 오는 여행자들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 간격으로 여행자를 사전 모집한다.

'고창한밤' 사업은 지난해 총 116팀(335명)이 참가해 약 4800만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 규모로 진행되며, 고창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고창을 떠나 살고 있는

출향인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그들이 고창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인 심택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한밤' 여행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관광지·광한루원 '한국관광 100선' 꼽혀

'2025~26'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남원시가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 단위로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관광지다.

남원시가 보유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한국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광한루원은 한국 전통의 최고 르브스토리 '춘향전'의 배경지이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가 크다.

돌담길 따라 걷는 은은한 빛의 광한루원 돌담길과 몽환적인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광한루원의 밤 풍경은 2023년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에 선정될 만큼 국내 대표적 야간 볼거리로 유명하다.

남원관광지는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국립민속국악원과 함께 숙박 및 식음시설이 집적화된 체류형 관광지로서 인근 합파유원지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선'에 선정된 남원 광한루원의 밤풍경. <남원시 제공>

유아숲체험원, 키즈아트랜드, 달빛정원 등을 조성 중이다.

특히 남원의 대표관광지 광한루원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결합한 관광사업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광한루원과 함께 남원관광

지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관광지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남원만의 풍성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보건소, 치매 위험도 무료 검사

60~70세 선착순 2000명...혈액검사로 위험군 조기 발견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선착순 2000명에 한해 60~70세(1955~1965년생)의 시민 중 무료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희망자를 모집한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는 단 한번

의 채혈로 혈액 속 '베타-아밀로이드 농도'를 측정해 10~15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매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나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후 예약일을

잡으면 된다. 검사에서는 1차 치매인지 선별검사(CIST)를 통해 인지평가 결과 정상군은 2차 혈액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1차 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차 혈액검사가 없이 '진단검사'를 통해 정밀진단을 받게 된다.

신청과는 별개로 검사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됐다. 동 지역 거주자는 예약일에 남원의료원에서, 읍면지역은 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방문 혈액검사로 진행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교육청, 학생 인성교육 강화

올해부터 '1학교 1인성 브랜드' 추진...창의적 체험활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학교 1인성 브랜드' 정책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인성 행동 요소가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새 학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성브랜드를 채택하게 된다.

인성브랜드는 ▲교과와 연계된 교육과정 재구

성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학습과 연계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도 교육청은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 인성교육 성과 나눔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1학교 1인성 브랜드 우수사례를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계획대로 1학교 1인성브랜드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면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청년창업가에 최대 5000만원

시제품 개발 등 패키지 지원...교육공간 제공 청년1번가 입주자 모집

고창군이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자와 '청년1번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의 18~45세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또는 업력 5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개인 또는 법인)이다.

타지역 거주 청년은 고창군에서 사업장을 개소하거나 사업장을 고창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 중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소에는 시제품 개발·제작을 위한 1년차 창업지원금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제품 시연을 위한 성과공

유회를 거쳐 2년차 자립을 위한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1번가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표가 18~45세인 청년이고 사업 참여 구성원 중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인 청년단체 또는 법인이다. 제공되는 공간을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의 전시·판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